

시끌벅적 e-스타

인터넷에서 패러디는 네티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아이템이다. 현실을 풍자하면서 웃음을 줄 수 있는 탓에 패러디는 항상 검색 빈도가 높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패러디 아이템은 '미녀는 괴로워' 영화 속에서 김아중이 부르는 '마리아' 패러디 '말이야' 동영상.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기 동영상에서 조회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다.

영화 OST인 '마리아'는 영화 인기가 더불어 김아중이 직접 불렀다는 점에 각종 가요차트에서 1위를 석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패러디 동영상은 자신의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리고 있다.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려와 차를 빼라"며 화를 낸 집주인 앞에 나타난 사람은 K1 선수 최홍만 거구의 차량 주인을 본 뒤 기가 죽어 쫓겨갈 뻔한 내용이다.

동영상을 만든 '미티'라는 네티즌은 이 과정에서 김아중 못지 않은 시원한 가창력을 선보였고, '내려와, 빼라 말이야', '튀어라, 나의 다리야', '말이야, 완전 말이야' 등 재미있게 가사를 바꾼 것도 부드럽게 잘 들어맞으면서 네티즌들의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은 지금 '패러디'중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 현실을 풍자하는 것뿐만 아니다.

최근 출시된 마이크로 소프트(MS)의 새 운영체제 윈도 비스타에 대한 패러디도 눈길을 끈다.

특히 국내 단품 가격이 미국 현지보다 10만원 이상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네티즌들은 윈도 비스타를 '윈도 비싸'로 바꾼 패러디 광고를 선보였다.

얼마전 끝난 장춘(長春) 동계아시아게임에서 우리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이 벌인 '백두산 세리머니'를 비하하는 '화성도 우리땅(火星也是我們的)'으로 바꾼 패러디 사진이 등장, 국내 네티즌들에게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치적 이슈도 빠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장면을 고이즈미와 합성시켜 놓은 패러디 사진이 인기를 끌었고, 지난해 월드컵 이후 지단의 박치기를 패러디한 게임이 서비스되기도 했다.

재기발랄함이 살아있는 패러디. 하지만 일정 수준 교양을 갖춘 패러디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모든 네티즌들의 바람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50. 40억 아시아인들의 겨울철 스포츠 축제인 제6회 창춘 동계아시아게임이 4일 끝났습니다. 26개국 1천100여 선수·임원이 참가해 얼음판과 눈밭에서 우정의 레이스를 펼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 9개·은 13개·동메달 11개를 따냈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대회 막판 일본에 추월당하며 지난 1999년 강원도 용평 대회 이후 3회 연속 2위 달성 꿈을 접게 됐습니다. 한국의 최종 성적은 몇 위일까요?
① 1위 ② 2위 ③ 3위 ④ 4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자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⑤ 미혼 남녀가 듣고 싶은 설 덕담은 뭘까

올 설 25~35세 미혼남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새해에 돈 버락 맞아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이 지난달 8일부터 3주간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25~35세 미혼남녀 1천516명에게 '설날연휴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덕담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해엔 돈버락 맞아라'(돈 많이 벌여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응답자가 32.3%(489명)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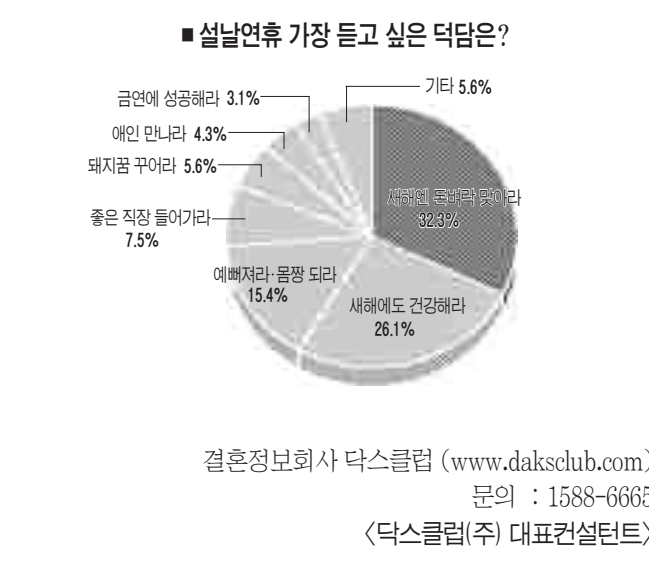
어떤 덕담 듣고싶으세요?

많았다.

이러 '건강해라'(26.1%), '예뻐져라. 멋있어져라. 몸짱되라' 등 외모 향상에 대한 덕담(15.4%), '좋은 직장 들어가라'(7.5%) 순이었다.

이외 '돼지꿈 꾸어라'(5.6%), '사랑하는 사람 만나라'(4.3%), '금년에 성공해라'(3.1%) 등 '부모님께 효도해라'(2.7%), '결혼해라'(1.4%) 등을 듣고 싶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결혼해라'는 말은 피해야 할 덕담으로도 꼽혔다. 응답자의 43.6%(661명)가 듣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절종 들어라'(21.0%), '살종 빼라', '피부관리 좀 해라'(17.8%), '금연(금주)해라'(11.9%) 등의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8일(음 12월 21일 계유)

- 子** 36년생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수다. 48년생 미운사람이 보이면 말 조심해야 한다. 60년생 뜻하는 일은 이루어지나 소득은 적다. 72년생 바쁜 하루가 된다. 84년생 애인이 생기자만 마음에는 안 든다. 행운의 숫자 : 09, 36
- 丑** 37년생 작은 병도 살펴보고. 49년생 분수를 지키면 큰 화도 비껴간다. 61년생 욕심을 버리라. 큰 득은 없다. 73년생 인생행로에 변화수가 보인다. 85년생 여유 있게 생각하라 계획은 꼭 성사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40
- 寅** 38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소원이 그친다. 50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화해하면 내 사람이 된다. 62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큰 도움은 못준다. 74년생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1, 25
- 卯** 39년생 물러간 일이 생기지만 큰일은 아니다. 51년생 화를 잠재우 마무리가 좋으니 재물도 얻으리라. 63년생 옛 일을 잊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라. 75년생 가장 직장 자신사이에 불평사가 생기나 해결은 곧 된다. 행운의 숫자 : 14, 38
- 辰** 40년생 새로운 문서에 잘못이 발생할 수도 있다. 52년생 직장에서는 행동을 정어는 말을 조심하라. 64년생 처음은 어려우나 나중은 쉬워진다. 76년생 뜻을 내고 나가보라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29
- 巳** 41년생 지난 일이 괴롭힐 수 있으니 옛 일을 살펴보고. 53년생 욕심이 부질없다 변화를 삼가 하라. 65년생 친할수록 조심하라 우정이 깨질 수도 있다. 77년생 눈물이 보일 수니 조심해서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 03, 45
- 午** 42년생 예정대로 구설수가 생기나 명예가 격정된다. 54년생 인생의 경력이 후반전의 전략이니 지혜롭게 진행하라. 66년생 아들·딸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니 기뻐할 만하다. 78년생 친구의 도움에 이끌리니 옛정을 되살려라. 행운의 숫자 : 05, 26
- 未** 43년생 아내는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살펴보고. 55년생 남편이 고인한다. 곁에서 살펴보고. 67년생 친구의 지혜를 빌리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79년생 풀음보다 경력이 우선이다 선배의 도움을 청하라. 행운의 숫자 : 01, 35
- 申** 44년생 심상을 굳건히 고집이 따를 수도 있다. 56년생 미리 준비하면 실마리가 보인다. 68년생 힘의 안배를 조절하면 만사가 행통한다. 80년생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의 말을 조심하라.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8, 32
- 酉** 45년생 진위를 분명히 하라 득과 실이 교차된다. 57년생 자녀의 고충이 보인다. 대화하면 풀리리라. 69년생 불어린 이별수도. 대화로써 해결하라. 81년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평온하다. 행운의 숫자 : 04, 42
- 戌** 46년생 주변의 도움이 있다. 고인이 풀리리라. 58년생 수리를 역류하면 결과는 없다. 70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험악하니 마음을 찾아라. 82년생 물고 싶은 일이 생기니 마음껏 물려라. 큰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6, 28
- 亥** 47년생 타인과 구설수는 본인의 잘못이다. 59년생 망신살이 얽혀오니 지난 일을 회개하라. 71년생 타인의 입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니 주변인에게 배설하라. 83년생 안고 곁에 악수한다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단하라. 행운의 숫자 : 02, 43

제1회 교육감배 결승전
중등부 결승전
백 윤용희 (비아중 1)
흑 권재구 (문성중 1)

초등학생을 위주의 바둑행사인 어린이 바둑대회는 많이 열리고 있는데 비해 중등부 바둑행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둑이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날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의 지속적인 교육과 선수수급을 위해서는 중등부 이상의 바둑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이런 때에 교육감배가 창설돼 중등부 바둑대회가 같이 열리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수많은 강자들을 몰라치고 영예의

제1회 교육감배 결승전에 진출한 두 선수는 예상외로 중학교 저학년들로 문성중 1학년 권재구군과 비아중 1학년 윤용희군이다.

중등부는 고등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결승에 오르는 데는 대단히 힘들다. 그러나 권재구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망주이고 윤용희군 역시 서울에서 연구생으로 본격수업을 한 우수후보이다. 정통수업을 쌓은 경력을 보여주듯 매끄러운 초반진행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박영훈, 농심배 5연승 제등

박영훈 9단이 7일 중국 상해 화칭호텔에서 열린 제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차전 제12국에서 중국의 쑹제 7단에게 164수 만에 흑 불계 패했다.

전날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9단을 꺾고 4연승을 달성했던 박 9단은 이날 패배함에 따라 연승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 9단은 이날 초반 악수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쑹제에게 기선을 빼앗긴 뒤 중반에 역전찬스를 맞았으나,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한국의 마지막 주자인 이창호 9단은 8일 쑹제와 격돌한다. 우승상금은 1억5천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타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p>굿모닝 잉글리쉬 <837></p> <p>It could've been worse 그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야</p> <p>A: My money was stolen while I was in the States. B: How much? A: Over a thousand dollars. A guy came up to me with a gun and took all my money. I was pretty scared. B: That's too bad. But it could've been worse. You might've been killed.</p> <p>A: 미국에 있을 때, 돈을 빼앗겼어. B: 얼마냐? A: 천 달러가 넘었어. 어떤 녀석 하나가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총을 가지고 말야. 그리고 내 돈을 몽땅 빼앗겼어. 아주 무서웠어. B: 정말 안됐구나.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야. 살해 되었을지도 모르잖아.</p> <p>scared : 무서워하는, 겁먹은 You might've been killed = Count your blessings = How many blessings you have</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히ongo <837></p> <p>薬(くすり)のんだら? 약 먹는게 어때?</p> <p>A: かぜひいた。 B: 大丈夫(だいじょうぶ)? A: 熱(ねつ)があるから體(からだ)がだるい。 B: 薬(くすり)のんだら? A: うん。そうする。</p> <p>A: 감기 걸렸어 B: 괜찮아? A: 열이 있어서 몸이 나른해 B: 약 먹는게 어때? A: 응, 그렇게</p> <p>여기서는 ~~타라는 가정이 아닌 ~~하면 어때? 라는 권유의 표현이다 '어때'의 의미인 'どう가 생각行ったら(どう)? : 가는 게 어때? 食べたら(どう)? : 먹던 게 어때?</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28></p> <p>我想预定一个房间 방 하나를 예약하고 싶습니다</p> <p>A: 您好。北京大飯店。 Nǐhǎo, běijīngdàfǎndiàn 안녕하세요. 베이징호텔입니다. B: 您好, 我想预订一个房间。 Nǐhǎo, wǒxiǎng yùdìng yíge fángjiān 안녕하세요. 방 하나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A: 预订什么房间? 标准间还是豪华间? yùdìng shénme fángjiān? biāozhǔnjiān háishì háulúajiān? 예약할 방은 어떤 방입니까? 표준방입니까? 아니면 고급방입니까? B: 标准间比较实惠, 我想一个标准间。 biāozhǔnjiān bǐjiào shíhù, wǒxiǎo yíge biāozhǔnjiān 표준방이 좀 더 실용적이니까요. 표준방 하나를 예약하고 싶습니다.</p> <p>A: 标准间多少钱, 标准房多少钱。 B: 标准房 250, 豪华房 300. 您想订几间? A: 我想订两间标准房和一间豪华房。您能订吗? B: 没问题。我们给您订两间标准房。</p> <p>预订 [yùdìng] 예약하다, 預金하다 标准间 [biāozhǔnjiān] 표준방 (표준형 방) 豪华间 [hualuxiān] 고급방 (고급형 방) 实惠 [shíhù]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p> <p><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p>	<p>한자 이야기 <455></p> <p>胡蝶之夢 (호접지몽) 오랑캐 호, 나비 접, 어조사 지, 꿈 몽</p> <p>호접지몽(胡蝶之夢)은 나비가 된 꿈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장주(莊周·장자의 이름)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꽃과 꽃 사이를 훨훨 날아다니는 즐거운 나비 그 자체였다. 그러다가 문득 깨어 보니, 자기는 그대로 장주가 되어 있었다. 이는 대체 장주인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나비이고 그 나비인 자기가 꿈속에서 장주가 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 꿈이 현실(現實)인가 현실이 꿈인가.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구별(區別)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인생(人生) 그 자체가 하나의 꿈이 아닌가? (莊子·齊物論)</p> <p>장주가 곧 나비이고, 나비가 곧 장주라는 경지, 이것이 바로 장주가 말하고자 하는 세계이다. 물(物)의 구별이 없는 만물일체(萬物一體)의 경지에서 보면 장주도 나비도, 꿈도 현실도 구별이 없다. 다만 만물의 변화가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피아(彼我)의 구별을 잊으면, 인생의 빈부(貧富)·귀천(貴賤)·미추(美醜)·선악(善惡)·진위(眞偽)·시비(是非)에서 초월하여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장주가 추구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인 것이다.</p> <p><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교정연구원 ☎ 230-6505</p>
---	---	--	--